연중 기획 한국문화 대탐사 ④ 기로에 선 세시풍속

기다림과 절제, 맺고 끊음… 우리는 세시풍속으로 철이 들었다

곧 설(구정)이다. 차례를 지내고 세배하며 조상과 만나고 친지들과 정을 나눈다. 예전엔 확실히 그랬다. 그러나 설을 정점으로 하는 세시풍속은 의미와 지위를 잃어가고 있다. 세시풍속은 음력 정월부터 설달까지 반복돼온 주기전승의례(週期傳承儀禮). 오랫동안 이 땅 사람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는 끈이었다. 그런데 오늘날은 풍속이 크게 변모했다. 서구나 동서양 문화 접변에서 온 이색 풍속도 끼어든다. 그렇다면 현대 한국인들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세시풍속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인가.

안성규 기자, **김석근**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askme@joongang.co.kr

1950년대 전라남도 보성군 노동면 한 마을의 음력 2월 초하루. 청년들이 큰 돌 앞에서 웃통을 벗고 서 있다. 마을 어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명이 커다란 돌을 든다. 붉게 달아오른 얼굴, 온몸의 힘줄이 불거진다. 어영차 소리에 돌이 번쩍 들린다. 청년은 이제 성인 대접을 받는다. 절반만 받던 품삯도 성인 품값을 온전히 받고 장가도 갈 수 있다. '들돌'로 성인식을 제대로 치른 셈이다. '성인의 자격'을 요구하는 조상의 풍습은 전북 임실, 경남 거창 같은 곳에서도 80년대까지 계속돼왔다.

들돌 시험에 담긴 의미는 뭘까. 전통적 농경 사회에서는 농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필요한 지식도 있다고 본 것이다. 지식의 요체는 세시풍속이었다. 언제 씨앗을 뿌려 수확하며, 무슨 의례가 필요한지를 아는 것이었다. 천진기 국립민속박물관장은 "흔히 '철들었다'고 하는 것은 세시풍속의 계절(철) 변화와 농사의 이치를 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만태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도 같은 견해다. 능숙한 농사꾼이 돼 농사의 계절 감각이 몸에 배면 '철들었다' 했고, 아니면 '철없다' '철 모른다'고 했다는 것이다. 사리분별을 못하는 어린이를 철부지라 한 것도 그 때문이다. 들돌로 치렀던 성인식은 '세시풍속을 마스터해 철들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의식이었다.

그러나 현대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시간만 흐르면 자동으로 성인이 됐다. 거창과 임실에 괭개처진 들돌(오른쪽 윗 사진)은 '철'을 괭개친 현대를 상징한다.

그로부터 60여 년이 지난 2013년 2월 14일 풍속을 보자. 인터넷에는 밸런타인데이 광고가 화려하다. 80년 중반 일본에서 유입된 이날은 어느덧 젊은 층의 풍속이 됐다. 여성이 좋아하는 이성에게 초콜릿 선물을 주며 사랑을 고백하는 날. 30년간 되풀이되는 이 유행도 세시풍속일까.

전국 세시풍속 콘텐트 2200여 가지

전통 세시풍속의 콘텐트는 풍성하다. 국립민속박물관의 『세시풍속사전』에 따르면 1월엔 595개 풍속 콘텐트가 있다. 전국과 지역을 합한 것이다. 1년엔 2200여 개다. 그중 '이름 있는 날(명절)'은 온 나라가 기념했다. 음력 13개 명절과 24절기 중 입춘·한식·동지, 복날 같은 날들이다. 나머지는 알고 지나가거나 적당히 챙겼다. 각종 날들엔 의식(儀式)과 음식·놀이가 세트처럼 따랐다.

풍성함은 1000년 넘는 세월이 만들었다. 『삼국사기』엔 추석·단오·유두가 나온다. 『고려사』에도 속절(명절)로 음력 정월 초하루, 정월 보름, 한식, 삼짇날(3월 3일), 단오, 중구(9월 9일), 동지, 팔관(11월), 추석 등 9개 날이 나온다. 조선시대 『동국세시기』에는 설날·한식·단오·추석을 4대 명절로 삼고 동지는 국가 명절로 추가한 것으로 나온다.

세시풍속은 농경사회의 질서였다. 추수 뒤 이듬해 2월까지는 설·대보름처럼 쉬는 풍속이 이어졌다. 농사는 2월 1일 기지개를 켰다. 이날 농사일에 나가는 며슴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며 위로했다. 조선 순조(純祖) 때 홍석모가 지은 『동국세시기』엔 '2월 초하루가 노비일이며 송편을 나이 수대로 준다'고 했다. 다음 큰 세시는 음력 5월 5일 단오. 겨울 보리를 수확해 보릿고개를 간신히 넘는 시기다. 진짜 수확은 8월 15일 추석에 기념했다. 햇곡식을 천지신명에 바쳤고 큰 놀이를 즐겼다. 추수를 끝낸 뒤 열리는 서양의 추수감사절(생스기빙데이)과는 다르다. 10월은 상달(오뜸달·上月). 천지신명에 감사하는 고사와 제례의 시즌이다. 고구려의 동맹, 동예의 무천도 10월 제사이며 현대의 개천절 10월 3일은 음력이 양력화된 것이다. 집마다 고사를 지냈고 굿, 문중제사, 마을제도 열렸다.

세시풍속엔 기다림과 절제, 감사, 끊고 맺음 같은 가르침도 들어 있다. 세시풍속의 3요소는 '시절 음식'과 '민속놀이' '빔(새옷)'. 음식은 시즌 재료로 만든 절기 음식이었고, 빔은 설·단오·추석에만 입었다. 때가 아니면 못 얻는 것들에서 기다림과 절제를 배웠다.

전통 농촌사회에서 '돌 들기'는 성인식의 중요한 방식이었다. 돌을 들면 성인이 됐는데 농사 지을 힘과 지식이 있다고 봤다. 그 지식은 세시풍속에 '철', 즉 계절의 변화를 아는 것이었다. 성인식은 '철 들었음'을 보는 의식이었다. 그런데 현대에 들어와 철은 의미가 없어졌다. 거창의 한 마을에 괭개쳐진 들돌(오른쪽 사진)은 '철들'을 우습게 여기는 현대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2011년 촬영) [사진 국립민속박물관]

시절 음식, 놀이, 빔 3가지 요소엔
때 가릴 줄 알게 가르치는 뜻 담겨
단오 그네줄 끊는 것도 같은 이치
세시풍속 모르는 현대인 '철부지'

끊고 맺음의 예로 5월 단오가 있다. 청춘의 맘을 애끓게 한 그네 줄을 1주일 뒤 잘라낸다. 적당히 놀았으면 일할 때는 일하라는 뜻이다.

산업 사회에서 이런 지혜는 끊겼다. 농경사회 '철'의 의미를 다 따르기 어려웠고 '절제와 감사, 맺고 끊음'의 가르침은 풍요로운 물질문명사회에서 의미를 잃었다.

60년대 세시풍속은 도농에서 지켜졌지만 70년대부터 맹공을 받았다. '근대화=서구화'라는 생각에 전통을 현대했다. 풍속 저장소인 농촌도 붕괴됐다. 50년 도시화 비율은 18.4%, 60년 28.3%였으나 2007년 90.5%로 치솟았다. 양력이 정착돼 '15일-삭망(朔望)'의 휴일 주기가 '7일-1주(週)' 주기로 바뀐 것도 결정타였다. 고려시대 관리들은 최대 93일을 쉬었는데 세시풍속의 명절날이었다. 토요 휴무가 정착된 현대엔 130일쯤 쉰다. 그러나 세시풍속과 관련 없다. '1주 주기'와 '15일 주기'의 불일치 때문에 '쉬지 못하는' 세시풍속은 내몰렸다.

상상 못했던 요인들이 1000년 연륜의 세시풍속을 난타한다. 온난화는 겨울 풍속을 몰아냈다. 서울 출신 배정철(56)씨는 대보름 달맞이와 쥐불놀이를 기억한다. 밝은 보름달 아래 쥐불을 열심히 돌리며 늦게까지 놀았다. 그러나 지금은 추억 속 풍속이다.

그 결과 세시풍속에 대한 의식이 희미해졌다. 김만태 교수의 논문 『세시풍속의 기반 변화와 현대적 반응』엔 85년 중소도시 국민학교 3~6학년 529명을 대상으로 한 14개 세시풍속에 대한 설문조사가 나온다. 설·대보름·추석은 다 알았지만 동지(65%), 한식(61%), 복날(44%), 단오(43%), 삼짇날(40%)은 잘 몰랐다. 반드시 지킬 세시는 추석(80%), 설날(76%)뿐이었다. 당시 아이들이 지금은 40대 장년층. 그들의 자식들에게 세시풍속은 더 낯설 것이다.

입춘을 알리는 입춘첩(立春帖). 명절은 아니었지만 이날은 세시풍속의 중요한 날이었다.

2008년 4월 경남 의령군에서 벌어진 세계 최대 줄다리기. 1800년부터 의령현에서 열렸던 정월 대보름날 행사를 확대한 것이다. 2만 명이 참여했다.

휴가 여행은 챙겨도 명절 귀향은 꺼려

그나마 '명절 2강'인 설·추석도 흔들린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귀성하느냐'는 질문에 설은 97년 40.8%, 2002년 41.5%로, 추석은 93년 31.1%, 2003년 36.2%로 나왔다. 그런데 '여름휴가 때 여행가겠다'는 비율은 94년 56%, 2002년 59.6%였다. 최고 세시풍속 자리에서 설·추석이 여름휴가에 밀리는 것이다. 게다가 설·추석을 반기지도 않는다. "즐겁지 않다"는 답이 2002년 조사에서 설은 35.5%, 2003년 조사에서 추석은 48.2%였다. 교육·소득이 낮을수록 부정적이었다. 김 교수는 "차별 없이 함께 즐긴 세시풍속이 사회적 혜택을 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에 불평등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실망은 아직 이르다. 세시풍속은 사라지지 않고 다만 진화하는 것일 수 있다.

#장면1=1950년대 말 4월의 따스한 봄 날. 경북 의성군·안동군의 아낙들이 인근으로 산행을 한다. 진달래를 따다 참쌀가루에 버무려 화전을 부친다. 고소한 기름내가 깔깔거리는 아낙의 웃음에 실려 산으로 퍼진다. 남자들도 산에서 시를 짓고 놀았다. 음력 3월 3일 삼짇날의 풍경이다. 『동국세시기』에도 '충청도 진천에선 3월 3일부터 4월 8일까지 매년 여자들이 연못가로 와서 기도하는데 장을 이룬 것 같다'고 쓴 기록이 나온다.

1970년 4월 20일자 중앙일보 7면엔 '19일(일요일) 전국에 65만 상춘객이 봄을 즐기러 산야로 몰렸다'는 기사가 실렸다. 1971년 4월 26일엔 '창경원에 11만5000여 명, 서울의 우이동·정릉·뚝섬 유원지엔 22만7000여 명의 상춘객이 몰렸다'고 했다. 그로부터 42년 뒤인 2013년 4월 서울 근교의 산엔 소풍을 나온 초중고생, 상춘 인파가 북적댔다. 조선시대, 1950년대, 1970년대, 2010년대는 '꽃피는 봄 4월의 상춘객'이란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장면 2=1929년 음력 6월 15일, 서울 종암동에 살던 당시 7세 김정희 할머니(92)는 어머니와 갓 시집 온 큰 언니, 동네 아주머니와 정릉의 청수장 계곡으로 갔다. 폭포 아래 너른 소에 젊은 여성들은 몸을 담갔고 어른들은 폭포수로 마사지했다. 때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월 중순, 음력 6월 15일 유두(流頭)날. '물맞이'라 불리는 세시풍속 장면이다. 김 할머니 가족 중 아버지와 오빠 같은 남성은 동네 사람들과 인근 개울로 천렵을 갔다. 김명자 안동대 명예 교수도 "이날 서울 모래내로 물놀이를 갔다"고 했다.

정월 대보름의 대표 풍속인 쥐불놀이.

삼짇날 화전 부치기.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에서.

『동국세시기』엔 "고려 명종 때 김극기가 쓴 문집에 유두잔치(流頭宴)가 나오는데 조선도 이어받아 속절로 삼았다"고 썼다.

2013년 8월 4일 경북 동해안 4개 해수욕장엔 하루 동안 62만 명 피서인파가 몰렸고 11일엔 부산시내 7개 해수욕장에 158만 피서인파가 몰렸다. 바캉스 인파다. 음력 6월, 양력 7월 더위를 피해 물가로 인파가 몰리는 유두와 바캉스는 비슷하지 않은가.

김 명예교수는 "세시풍속이 변해 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꽃놀이를 했던 삼짇날의 '행락정신'은 산업사회에서 봄 소풍·벚꽃 놀이 같은 '도시 세시, 현대 세시'로 변화됐다는 것이다.

풋구(풋굿)는 또 다른 예다. 경북 안동시 풍산읍 수동 마을은 80년대 초반까지 음력 7월 중순, 술을 담그고 전을 부쳐 먹으며 놀았다. 그러다 사라졌는데 2000년 양력 7월과 추석 1주일 전 공동으로 풀을 베고 청소한 뒤 부녀회가 마련한 음식을 먹는 방식으로 부활했다. 김 교수는 "4~5년 전까지 양력 8월 15일 풋구를 하는 현상이 관찰됐다"고 말했다. 민속 연구가들은 매년 동해안 정동진에 모이는 해맞이 인파는 정월 대보름 달맞이의 변형으로 본다. 5월 1일 노동절은 음력 '머슴날'의 의미가 발전된 것이라고 한다.

오늘날 세시풍속에는 주요 4대 기능인 휴식, 오락·축제, 종교 의례, 공동체 통합 가운데 휴식만 두드러지게 남았다. 기념·축원 기능은 성인의 날, 근로의 날, 조세의 날, 부부의 날 같은 것으로 분화됐지만 의미를 갖지 못한다. 세시풍속 대부분의 콘텐트는 무형문화재나 지역축제라는 틈새에서 목숨을 부지하거나 사라진다. 휴일로 지정되지 못하면 사라지는 세시풍속. 그렇다면 한 세대 뒤 뭐가 남을 것인가.

중앙SUNDAY-아산정책연구원 공동기획

세시풍속 어떻게 변해있나

계절	풍속명	주요 내용	현재 실태
봄(정월~3월)	1월 설날	떡국 먹고 조상과 집안 어른에게 새해 인사	추석과 함께 한민족 2대 명절로 유지, 국가공휴일
	정초	방액, 머리카락을 태우는 소액 등 제액	거의 잊혀짐
	정월 대보름	부럼 깨고, 귀밝이술을 마시며 액막이	지역 행사나 축제로 변화
	2월 초하루(머슴의 날)	집안 청소하고 노래기 쫓아냄	노동절로 변모
	한식 2월 혹은 3월	무덤에 떼 입히고 성묘하며 찬밥 먹음	개인적으로 기념
	2월 석전	문묘의 공자에게 제사	대중 인식 없고 거의 잊혀짐
	2월 입춘	보리농사의 풍흉을 알아보는 농점	계절의 시작으로 인식
	2월 초엿새	별무리(좀생이) 보며 농사의 풍흉 점침	거의 잊혀짐
	3월 3일(삼짇날)	산행과 진달래 화전	봄 소풍과 봄 여행으로 변화
여름(4~6월)	4월 초파일	연등과 탑돌이. 부처님오신날	국가 공휴일
	5월 단오	단오빔 입고 창포물에 머리 감고 그네 탐.	양력 5월. 가정의 달로 변화. 지역 단오축제로 유지
	6월 유두	동류수(東流水)에 머리 감고 계곡에서 물맞이	여름 휴가철로 변화 중
	6~7월 복날(삼복)	복 놀이와 복 제사	여름 별식 먹는 날로 인식
가을(7~9월)	7월 칠석	정화수를 떠놓고 별을 보며 가족의 무병장수 가내 평안 기도 처녀들은 바느질 솜씨, 학동들은 글 솜씨를 기원	연인의 날로만 인식. 청년층엔 밸런타인데이로 변모 중
	7월 15일 백중	조상에 차례. 마을 제사와 잔치(다른 이름: 호미씻이/풋굿/길꼬냄이)	여름 휴가
	8월 추석	햇곡으로 송편 빚고 차례 지내는 연중 최대의 명절	국가 공휴일. 최대 명절 중 하나로 위상 유지
	8월 칠 정일(丁日)	문묘에서 추계 석전	특정 계층만 관심
	9월 9일(중구)	무주고혼(無主孤魂)을 위한 제사	거의 잊혀짐. 가을 소풍 시즌으로 변함
겨울(10~12월)	10월 상달(上月)	가신 등에 고사	거의 잊혀짐
	10월 3일(개천절)	단군의 건국날 대종교(大倧敎)에서 대제를 지냄	음력이 양력으로 전환돼 유지. 국가 공휴일
	10월 말날(10월의 첫 오일(午日))	외양간에 팥시루떡을 놓고 고사. 말의 무병과 집안의 평안을 기도	거의 잊혀짐
	11월 동지	붉은 팥을 넣은 동지팥죽 먹으며 귀신을 쫓아냄	팥죽 먹는 날로만 인식
	12월 납일(臘日)	동지로부터 세 번째 미일(未日). 종묘와 사직에 큰 제사	거의 잊혀짐.
	12월 제석(除夕·섣달 그믐날 저녁)	세말을 고하는 사당제를 지내고 어른들에게 구세배를 드림	거의 잊혀짐
윤달		부정이 없어 평소 조심스러운 일을 마음 놓고 할 수 있으면서도 액을 피하는 예방을 해야 하는 달	노장년층 인식

자료: 국립민속박물관·아산정책연구원

아산정책연 설문조사 고사떡 vs 피자

19~29세 63% "이사 떡 부담… 피자라면 돌릴 의향"

김석근 아산정책연구원 인문센터장
root@asaninst.org

고사(告祀)와 고사떡은 전통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세시풍속의 수단이었다. 고사 뒤 같은 마을에 사는 형제·친족·이웃에 떡을 돌렸다. 떡에 담긴 따스한 감정은 공동체 의식을 훈훈하게 만들었다. 마을로 이사간 새 구성원은 으레 고사떡을 돌렸다. 그런 인사로 공동체와 소통하며 하나가 됐다. 이사와 고사, 고사떡은 공동체의 소통의 중요한 의례였다.

한 세대 전만 해도 몸에 배었던 세시풍속은 거의 사라지고 있다. 그런데 젊은 세대가 풍속의 전승에 소극적일 뿐 아니라 퇴출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 여론연구센터(센터장 김지윤 연구위원)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인터뷰를 한 결과다.

'고사와 인사'에 대한 첫 인문학적 설문조사다. '한국문화대탐사' 취재팀은 세시풍속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동체 의식과 전통을 유지하려는 마음이며 이를 드러내는 가장 좋은 수단은 '인사와 고사, 음식 나누기'라고 보고 이 조사를 기획했다.

조사 결과 "최근 이사하면서 음식 등으로 이웃에게 인사를 했느냐"는 질문에 57.5%가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여론연구센터 김지윤 연구위원은 "현대사회에서 이웃과의 단절이 심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대도시가 더 심했고 서울은 63.6%로 바닥이었다. 연령별로는 19~29세가 67.2%로 가장 높았고 30대(59.9%), 40대(56.8%)가 뒤따랐다. 이는 '소통'을 외치면서도 정작 이웃과의 소통은 단절되고, 젊은 세대가 특히 그렇다는 점을 보여준다. 공동체 정신을 후대에 물려줄 가교인 젊은 세대가 오히려 '자신도 모르게' 공동체 기반을 흔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들이 사회의 주역이 될 미래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

흥미 있는 부분은 "이사 떡을 피자·햄버거로 대체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에 45.1%가 긍정적이었고 19~29세는 63.1%로 훨씬 더 찬성했다는 점이다. 50·60대는 30% 정도가 지지했다. 이 설문의 취지는 '떡이 부담스러우면 간편한 피자·햄버거로 할 수 있지 않는가'였다. 설문 결과를 부정적으로 보면 젊은 층이 서구 문화의 영향을 너무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소통의 수단을 달리하면 공동체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본다면 '소통 단절'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

절반 이상은 고사문화 자체 몰라
공동체 정신 이어야 할 젊은층이
공동체 기반 흔드는 주체로 변화

'이웃과 인사했다'는 42.5%의 사람들 가운데 '떡을 돌린 사람'은 74.5%였고 세대 차이도 크지 않았다. 19~29세는 71.9%, 50대는 80.8%였다. 공동체 의식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전통을 착실하게 따르는 것으로 해석된다.

'고사를 아십니까'라는 질문엔 62.3%가 '알고 있다'고 했지만 19~29세는 53%가 '모른다'고 했다. 30대는 37.8%, 40대는 33.2%가 몰랐다. 젊을수록 세시풍속과 단절돼 있는 것이다. 고사 자체에 대해선 40.7%가 부정적이었다. 뜻밖에 19~29세는 36.2%만 부정적이었는데 이는 고사 자체가 뭔지 몰라 그랬을 가능성을 반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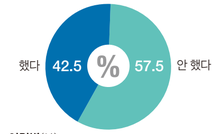
'고사를 지내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태도는 직업·지역에 따른 편차가 컸다. 전체 31.1%만 고사를 긍정했는데 농·임·어업 종사자들은 43.2%가 찬성했다. 자연재해와 일기에 민감한 산업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 부산·울산·경남(39%), 대구·경북(40.5%), 강원·제주(39.4%) 지역의 고사 지지율이 타 지역보다 높았다. 농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광주·전라 지역에서 28.6%만 지지한 점은 특이하다. 고사의 상징인 '돼지 머리'에 대해 19~29세는 30.3%만 찬성했지만 농·임·어업 종사자의 42%가 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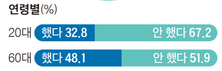
이번 조사는 '고사 형식의 소통'이란 세시풍속엔 직업·지역·나이에 따른 전선이 형성돼 있음을 시사한다. 직업별로는 농·임·어업과 나머지 직업군과 상대적으로 반대 입장에 서 있다. 지역별로는 '강원-경남-경북-제주 축(軸)'과 '전라-충청-경기-서울 축'이 동·서로 나뉘어 전선을 형성하는 꼴이다. 연령별로는 19~29세의 젊은 층이 소극적이고 나이가 올라갈수록 긍정적이다.

결국 나이·직업·지역을 경계로 그어진 세시풍속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느냐가 과제라는 점이 이번 설문조사로 확인된다.

최근 이사하면서 이웃에 인사 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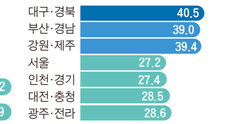


연령별(%)



이사 떡을 피자·햄버거로 대체하는 것은(%)

고사를 지내는 것에 찬성하는가(%)



자료: 아산정책연 여론연구센터

서양 풍습에 밀려나는 세시풍속

칠석날은 한국판 밸런타인데이 아닌가…

천진기 국립민속박물관장

한국인에게 '돼지꿈'은 소중하다. 꿈을 꾼 날 몰래 로또 복권을 산다. 『삼국사기』에 '제사의 제물인 돼지가 달아났다. 돼지를 잡은 장소인 국내성으로 고구려의 수도를 옮겼다. 그 돼지를 잡아 준 처녀와 고구려 산상왕이 결합해 동천왕을 낳았다'고 기록돼 있다. 『고려사』엔 왕건의 할아버지 작제건이 서해 용왕을 도운 뒤 선물받은 돼지가 송악산 남쪽 기슭의 터를 잡아 줬다고 나온다.

예부터 봄 농사 시작과 가을의 농사 마무리에 지내는 제사에서 돼지는 가장 중요한 제물이었다. 음력 10월 상달의 제사, 이사·개업 고사에서도 돼지머리는 필수다. 그게 없는 고사상은 핫밥이다.

요즘 개업식엔 화환을 보내지만 얼마 전까지 '돼지 가족 액자'에 '축 개업, 천구일동'이라 써 보냈다. 돼지는 돈·재복의 상징이다. 봄 시산제 때도 돼지머리는 꼭 쓴다. 전통대로 돼지머리 편육도 쓰지만 요즘엔 돼지머리 사진·그림도 등장한다. 휴대전화나 컴퓨터 모니터의 돼지 사진으로 간편한 고사를 지내기도 한다. 고대와 현재, 아날로그와 디지털 세계에서 돼지는 다양하게 표현되지만 재복과 행운을 부른다는 문화적 의미는 동일하다.

이는 세시풍속이 다양한 시대와 현상들이 복합돼 전승함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것, 유입된 것, 새로 만들어 진 것들이 어우러져 현재의 것이 된다. 10월 고사의 돼지머리처럼.

그런 의미에서 젊은이들의 새 풍속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청춘 사이엔 매월 14일 선물을 주고받는 '14일 포틴데이'가 유행이다. 관련 업계는 '데이 마케팅'으로 이날 매출을 올린다. 밸런타인데이는 이미 최대 특수가 됐다. 그런데 '14일의 기념일' 행사를 매도하고 기업의 상혼과 청소년의 태도를 나무라기만 할 것인가.

따지고 보면 우리의 전통 세시풍속에도 '연인들의 날'이 있었다. 신라 때부터 정월대보름의 탑돌이는 남녀의 만남이 이뤄지는 축제날이었다. 조선 세조 때는 주문이 심해 서울 원각사 탑돌이를 금지시킬 정도였다. 벌레들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양력 3월 6일)도 연인의 날이었다. 『사시찬요』엔 '은행 껍데기가 세모난 것이 수은행이요, 두모난 것이 암은행'이라며 서로 보고만 있어도 사랑의 결실이 오간다고 썼다. 누구나 아는 칠석날도 있지 않은가.

전통 세시풍속의 의미와 가치는 계승하면서 새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뿌리도 없는 날을 흉내내기보다 고유 명절의 의미를 발전시켜 계승하자는 것이다. 세시풍속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지만 전체 틀과 기능엔 큰 변함없다. 미래는 현재와 과거에서 만들어진다.

천진기